

바람 잘날 없는 풍력발전 피해 논란 건강실태 조사로 시시비비 가린다

도, 영암 금정면·신안 지도 주민 290명 정신건강 점검 결과 따라 풍력발전시설 육성 정책 기조 바뀔 수도

전남도가 풍력발전시설의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실태 조사가 나서기로 했다. 영암군 금정면, 신안군 자은도, 지도 등에서 조사를 벌인 뒤 환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풍력발전시설 허가 시 피해보상 기준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 전남도내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풍력발전시설과 관련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6년 1월까지 한 달여간 영암군 금정면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 122명, 신안군 자은도·지도 풍력발전소 주민 88명 등 모두 29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정도, 수면 시간, 우울감, 불안감 등 정신건강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군 보건소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들 주민은 풍력발전소의 소음, 진동, 저주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전남도내에서 풍력발전소가 운전 중인 곳은 영암 2곳, 영광 5곳, 신안 2곳, 화순 1곳 등 모두 10곳이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곳이 영광 1곳, 신안 2곳, 완도 1곳, 여수 1곳 등 5곳, 설치가 추

진 중인 곳은 20여 곳에 달한다.

전남도는 풍력발전소 허가 시 주민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사업자와 주민 간 분란이 잦아지자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다.

전남도의회 우희희 의원(영암1) 등도 지난달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전남도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하며,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정도와 애로사항을 듣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 관련 주민건강영향 조사는 강원도 동해항의 분진피해, 서울 서남권 항공기 소음피해 등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암 환자 10명 중 7명 '완치'

2013년 암 생존율 현황

의학 발달·조기 검진 영향
1999년 이후 발생률 줄어

의학의 발달과 조기 암 검진의 증가로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넘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한다는 것은 사실상 완치됐음을 뜻한다.

2013년 기준으로 암 환자수는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암 발생률 역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암 발생률·생존율·유병률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비환자 대비 생존 환자의 비율)은 69.4%로 2001~2005년(53.8%)보다 15.6%포인트나 높아졌다. 10년 생존율도 1993~1995년 38.2%에서 2004~2008년 56.9%로 18.7%포인트 올라갔다.

5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암은 갑상선암으로 100.2%나 됐다.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이 비환자보다 오히려 생존율이 높은 것이다. 전립선암(92.5%), 유방암(91.5%)도 90%대를 기록했으며 대장암(75.6%), 위암(73.1%)도 상대적으로 5년 생존율이 높았다. 특히

암 발생률·생존율 추이

▶2013년 암발생 현황

성별	발생률
남자(기대수명 78세)	38.3% (5명 중 2명)
여자(기대수명 85세)	35.0% (3명 중 1명)

▶암 환자의 5년 생존율

연도	5년 생존율
1993~1995	41.2%
1996~2000	44.0%
2001~2005	53.8%
2006~2010	65.1%
2009년~2013년	69.4%

자료/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위암의 5년 생존율(2009~2013년 기준)은 2001~2005년보다 15.4%포인트나 늘었다. 전립선암(12.3%p), 간암(11.2%p), 대장암(9.0%p)도 생존율 증가 폭이 컸다.

반면 췌장암(9.4%)과 폐암(23.5%), 담낭 및 기타 담도 암(29.0%), 간암(31.4%)은 생존율이 낮은 편이었다.

2013년 새로 발생한 암 환자수는 22만5천343명으로, 전년의 22만6천216명보다 소폭 줄었다. /연합뉴스

굿바이! 2015

문화전당 예술극장 제야 음악회 오세요

31일 클래식·재즈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연말을 맞아 31일 오후 8시 문화전당 내 아시아예술극장(사진)에서 '2015 제야 음악회'를 연다.

이번 제야 음악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가능한 실험적인 무대를 보여준다. 무대와 관객석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가변형 극장의 장점을 살려 하나의 극장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공연을 보는 듯한 색다른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임동혁, 발레리나 김주원, 마에스트로 성시연 등이 나와 클래식 선율을 들려준다.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와 팜페라 가수 카이가 함께하는 서정적인 무대도 펼쳐진다. 타악 그룹 라 퍼커션과 융복합 장르의 콘텐츠 미디어 퍼포먼스가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입장료는 R석 3만원, S석 1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東區의 他人能解

어르신들의 행복한 향훈을 응원합니다!

후원자: 구제길 · 후원처: 동구청 노인장애안복지과

안 내
어르신들의 행복한 향훈을 응원합니다!
매일 오후 3시(토·일·공휴일 제외)에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분에게 양보해 주세요
- 후원처: 동구청 노인장애안복지과

푸른길공원에 '타인능해' 간식함 22일 광주시 동구 신수동 푸른길공원 안 정자에 '타인능해'(他人能解)라고 적힌 간식함이 설치돼 있다. 동구가 설치한 '타인능해'는 타인도 열게 해 주위에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구례 양반가옥 운조루에 놓아둔 누구나 열어서 가져갈 수 있는 쌀주머니에 글귀를 적으면서 유래했다.

(광주시 동구청 제공)

해남 쌀 중국 수출 임박... 검역 작업 돌입

국내 미국처리장 6곳 대상...26일 옥천농협 방문

중국으로의 쌀 수출을 위해 넘어야 관문인 중국 심사단의 국내 쌀 수출작업장 심사작업이 22일부터 시작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27일까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 소속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검역단이 국내 미국종합처리장(RPC) 6곳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인다. 전남에서는 해남 옥천농협 옥새이리아센타에 26일 방문할 예정이다.

한·중 양국이 합의한 검역 요건에 따라 쌀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쌀 가공공장 과 보관창고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하고 중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실사 일정 첫날 양국 검역기관이 일정과 장소 등 실사내용을 협의하고 23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실사에 들어간다.

농식품부가 쌀 수출작업장 신청을 받아 후보업체로 선정한 전국 미국종합처리장(RPC)인 경기 이전 남부농협쌀조합(23일), 충북 청주 광복영농조합법인(24일), 충남 서천농협쌀조합(25일), 전북 군산 새제(25일), 강원 철원 동송농협(27일) 등이 대상이다.

중국 검역단은 각 미국종합처리장의 쌀 품질과 위생 관리 체계 등이 중국 식

품안전법 요건에 맞는지 확인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설이나 쌀의 질 등의 측면에서 옥천농협이 무난히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농식품부는 검역단 실사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중 중국으로의 쌀 첫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국산 쌀은 중국의 까다로운 검역 조건 때문에 중국 수출이 막혀 있었으며, 지난 10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검역 요건에 합의해 정부가 2009년 중국에 한국산 쌀 수입을 요청한 지 6년 만에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윤현석기자chadol@연합뉴스

전남형 지방분권 실현한다

3개년 추진계획 확정

권 추진 성과와 2016년 지방분권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앞으로 3개년간 지방분권 추진 방안을 담은 '전남 지방분권추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올 한 해 전라남도과 분권추진협의회는 실효성 있는 분권협의회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분과와 제도개선분과, 지방재정분과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전남도세마을회와 '범도민 분권운

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는 지방분권운동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전라남도세마을회 주관으로 정부의 영유아 보육사업, 취특세 인화정책 등이 지방에 미치는 영향 등 사례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주제로 지역순회 교육도 실시했다.

전남도는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한 '전남도 분권정책 추진방안' 정책연구 결과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전남 지방분권추진 추진계획(안)'을 작성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PASTA/PIZZA/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Ym 유한바이오 글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뇨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oM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화정신협 상임이사 모집공고

화정신협은 표준정관 제45조(임원)에 의거 상임이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구분	채용부분	인원	응시자격 요건	근무지
상임	신용,공제 이사	1명	1.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금융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광주광역시

전형절차

구분	1차	2차	합격자 발표	비고
상임이사	서류전형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개별통보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3개월 이내 사진 부착) 1통.
- 자기소개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경력증명서 1통.
-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
-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원서제출시 필수)
- 신원의 현황과 비전방향, 조직 중장기 운영방안(사업계획서)

채용조건

- 이사회추천 후 정기총회 결의에 의한 채용
- 급여: 연봉 4,000만원

서류접수

- 접수방법: 본인내방접수
- 접수기간: 2015년 12월 29일(화요일) 18:00까지
- 접수처: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길로 60
- 채용문의: 화정신협 (062-372-7711 총무과)

기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마감일까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원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2015. 12. 23

화 정 신 용 협 조 합 장